

-(으)ㄹ 뻔하다

~할 뻔하다 — 거의 일어날 뻔했지만 일어나지 않음

아슬아슬하게 피한 일을 나타냅니다.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며,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. 또 거의 과거형으로만 쓰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ㄹ 뻔했다	넘어지다 → 넘어질 뻔했어요
받침으로 끝남	-을 뻔했다	죽다 → 죽을 뻔했어요
ㄹ로 끝남	추가 없음	만들다 → 만들 뻔했어요
주로 쓰는 시제	과거만	뻔했어요 — 뻔해요가 아님
띄어쓰기	뻔은 명사	넘어질 뻔했어요
그 일은	일어나지 않았음	실제로 넘어지지는 않았음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ㄹ 짧은 형태를 쓰는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. 만들다는 다음이 됩니다: 만들 뻔했다. 뻔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거의 항상 과거형으로 씁니다: 뻔해요가 아니라 뻔했어요. 이미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

그 일은 보통 원치 않는 일입니다. 넘어지기, 늦기, 잊어버리기, 사고 등입니다. 좋은 결과를 놓칠 뻔한 경우에 쓰기도 하지만, 기본적으로는 나쁜 일을 피해서 안도한다는 뜻으로 씁니다.

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을 부정하면 의미가 뒤집혀 학습자가 혼란스러워합니다. 안 넘어질 뻔했어요는 거의 넘어지지 않을 뻔했다는 뜻이 되는데,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.

■ 예문

- 1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.
- 2 늦잠을 자서 지각할 뻔했어요.
- 3 약속을 잊어버릴 뻔했어요.
- 4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.
- 5 소금을 두 번 넣을 뻔했어요.
- 6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.

■ 비교

거의
거의는 ‘거의 다’라는 뜻으로 실제로 거의 완전히 일어난 일에도 씁니다. -(으)ㄹ 뻔하다는 그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.
거의 다 먹었어요. (거의 다 먹었다) / 먹을 뻔했어요. (먹을 뻔했지만 먹지 않았다)

-(으)ㄹ 것 같았다
것 같았다는 그때 예상한 것을 전하고, 뻔했다는 실제로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를 전합니다. 하나는 추측, 하나는 아슬아슬한 위기입니다.
늦을 것 같았어요. (늦을 거라 생각했다) / 늦을 뻔했어요. (실제로 늦을 뻔했다)

하마터면
‘자칫 잘못했으면’이라는 뜻의 부사로, 거의 이 어미와만 함께 씁니다. 짝으로 익히면 효율적입니다.
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요.

■ 주의

- ✗ 지금 넘어질 뻔해요.
- 아까 넘어질 뻔했어요.
아슬아슬했던 일은 이미 넘긴 일이므로 이 어미는 과거형으로 씁니다.
- ✗ 소금을 두 번 넣을 뻔했는데 실제로 넣었어요.
- 소금을 두 번 넣을 뻔했지만 다행히 안 넣었어요.
뻔하다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. 뒤에 실제로 일어났다고 말하면 구문과 모순됩니다.
- ✗ 저녁을 만들을 뻔했어요.
- 저녁을 만들 뻔했어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ㄹ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들 거예요, 만들 테니까와 같습니다.